



우주의 아마추어 저술가들

우주에는 미처 저술되지 않았던 수억만의 책들이...

책이란 무엇일까? 일기를 모아 놓으면 한 권의 책이 된다. 틈틈히 쓴 독서감상문이나 특별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모아놓아도 한 권의 책이 된다. 일기나 독서감상문이나 편지는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저자' 역시 마찬가지다. 일기를 모아 놓으면 책을 쓸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면 누구나 저자가 될 수 있다. 한 개인의 역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역사학회 아무개 교수나 베스트셀러 소설가 모씨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다.

● 전문가와 아마추어 구분, 근대국가 탄생 이후부터

비전문가와 전문가의 구분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근대 이후에 생겨났다. 《아마추어 과학자》의 저자 존 말론은 18세기 말까지만 해도 사물의 구성과 작용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학위'가 따로 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근대국가가 탄생하고 또 국가에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교육이 창조되면서 교육(과정, 비용)을 통해 학위를 받은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비전문가로 나누어지기 시작했다.

《아마추어 과학자》에 소개되고 있는 과학자는 바로 이러한 교육과정을 밟지 않았지만 소중한 과학적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다. 전기화학의 기초를 만든 전기분해 법칙을 발견한 마이클 패러데이(1791~1867)는 제본 견습공으로 일하며 독학으로 화학을 공부하고 직접 장비를 설계·제작해 수백 가지의 실험에 몰두했다. 유전학의 법칙을 발견한 그레고르 요한 멘델(1822~1884) 또한 정규교육을 받지 않았던 수도사였고, 데이비드 H. 레비(1948~)는 천문학이라고는 배워본 적도 없지만 망원경을 들고 산으로 들로 떠돌며 최대의 혜성을 찾아냈다.

철학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데카르트, 스피노자, 로크, 흄 등 우리는 이들을 '철학자'로 알고 있다. 물론 그들이 철학자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철학을 직업으로 한 사람은 아니었다. 최초의 직업 철학자는 대학에서 철학교수직을 가진 칸트였다. 그 이전까지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생업이 따로 있거나 아예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다.

근대에 형성된 전문가들의 권위에 균열이 오기 시작한 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생똥맛은' 학문과 시민사회의 발달이었다.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스트인 자크 데리다는 '해체'를 통해 중심을 허물어뜨리기 시작했다. 데리다는 어떤 중심 혹은 중앙을 거부하고 오로지 잠정적으로 정해진 위치들만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자유로운 '놀이'를 가능하게 했다. 이로써 저자와 독자도 오랫동안의 위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저자가 쓴 텍스트는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통해서 다시 창조된다. 독자 역시 저자 혹은 공동저자인 셈이다.

● 1970년대 스웨덴... 역사의 대중화, 대중의 역사화

시민사회의 성숙은 새로운 역사저술가들을 만들어냈다. 다름 아닌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쓰는 노동자들이었다. 한양대학교 임지현 교수는 《이념의 속살(역압과 해방의 경계에서)》(삼인)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는 "대중이 지식의 일방적인 전파대상이 아니라 역사연구자와 공동주체가 됨으로써 전문연구자와 대중이 함께 텍스트를 만들어가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고 말한다.

임 교수가 소개하는 당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0년대 스웨덴에서부터 시작된 '네가 서 있는 곳을 파헤쳐라' 운동(Grabe wo du stehst Bewegung)이다. 이는 한 마디로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역사를 쓰자'는 운동이다. 각자의 직업에 대해서는 노동자들 스스로가 가장 전문가이므로, 전문 역사가들보다 노동자들이 더 생생한 역사를 쓸 수 있다는 상식으로부터 이 운동은 출발한다.

또한 임 교수는 역사의 대중화라는 관점에서 역사평론가 혹은 아마추어 역사가들의 존재에 주목한다. 《지식인의 두 얼굴》(울유문화사)을 쓴 영국의 언론인 폴 존슨(Paul Johnson)이나 《나폴레옹》(문학동네)을 쓴 프랑스의 막스 갈로(Max Gallo), 혹은 《크바이크의 발

자크 펄전)(푸른숨) 등을 쓴 독일어권의 전기작가 스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이들 역사 에세이스트들은 전문 역사가들에 의해 입증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아카데미즘의 경직된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 역사의 대중화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1997년 국내에서 출간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한길사)를 떠올리면 된다. 이탈리아의 역사에 매료돼 5년간 이탈리아에서 유학하기도 했던 시오노 나나미는 이탈리아 의사와 결혼한 이후 피렌체에 정착하면서 어떤 공공 교육기관에도 다니지 않고 독학으로 이탈리아사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저서들을 집필한 경우다.

● 저술가가 되는 두 가지 유형, '능동적·수동적 지적 생활자'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파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와타나베 쇼이치의 《지적 생활의 방법》(세경멀티뱅크)은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저술가가 될 수 있는지를 가장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산문집이다.

영문학을 전공한 쇼이치 교수 역시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역사가 독일 육군을 축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꾸준히 사 모아 《독일참모본부》라는 책을 썼다. 쇼이치 교수가 보기에 지적 생활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교양을 쌓는 차원에서 독서와 지적인 담화를 즐기는 수동적인 지적 생활자와 집필, 저술 활동을 염두에 두고 독서와 연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능동적인 지적 생활자가 그것이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지적 생활자는 후자로서, 그가 소개하는 방법은 저술가가 되는 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의 오타쿠를 연상하면 된다. 한 분야에 병적(?)일 정도로 지적인 관심을 꾸준히 갖고, 관련된 책을 사모아 개인 도서관을 구축한다. 그리고 이를 능동적으로 정리, 연구해 나름대로의 글을 쓰면 되는 것이다.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려야 하는 일반 노동자들이 지적 생활을 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관심사를 정해 두고 꾸준히 책을 사 모아 자신만의 도서관을 꾸민다면 퇴직 후 남는 시간을 활용해 의미 있는 역작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임프리마코리아 이구용 부장은 미국의 예를 들며 “출판의 새로운 활로를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유명작가에 집착하기보다 무명작가를 발굴하는 게 필요하다”며 “자비출판을 한 작가 중 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작가를 찾아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가령 《소멸의 아름다움》(나무심는사람)과 같은 경우다. 35세에 '루게릭 병'에 걸려 5년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저자는 오히려 이를 계기로 '결함 있는 삶'이 어떻게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기회를 맞았다. 처음 2000년 11월에 자비출간된 이 책은 순전히 입소문으로만 수천 부가 팔려나갔다. 작가로서는 무명이나 다름없던 시먼스의 이 책은 결국 미국의 대형출판사인 밴텀북스의 눈에 띄어 정식으로 출간될 수 있었다.

한양대 정민 교수의 말처럼 우주 사이에는 지금도 미처 저술되지 않은 수억만 권의 서책들이 있다(《죽비소리-나를 깨우는 우리 문장 120》중에서). 그리고 누구나 그 책의 저자가 될 수 있다. 정 교수는 “우주라는 텍스트는 아무리 써도 다함없는 무진장의 곳집이어서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고, 아무리 써도 닳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정리 신동섭 기자